

건설정책리뷰 2021-07

2022년 건설경기 전망

박 선 구

2021. 12

요 약

■ 본고에서는 건설산업 주요 지표의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건설경기 전망을 수행함

- 건설경기 전망은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도급별(원/하도급) 계약액(수주) 역시 함께 분석함
- 전망의 방법은 건설수주, 투자,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시계열모형(ARDL)을 통해 전망치를 도출한 이후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취함
- 데이터 속성(월/분기/연) 및 다중공선성 문제 등으로 포함하지 못한 변수와 정책 변수, 대내외 환경 등을 별도로 고려하였으며, 전문건설업 전망은 모형 이외에 원/하도급, 선/후행, 건축/토목 등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하였음

■ 2021년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동행지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21년 3분기까지 GDP 구성요소 중 건설투자 만이 -1.2%의 감소세를 보임. 이에 따라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2021년 건설경기의 부진은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침. 3분기까지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3.4%가 상승했고, 건설공사비지수는 12.2% 올랐음. 이에 따라 현장 혼란과 공기지연 등이 다수 발생함
- 또한, 정부의 공공투자 급감 역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21년 3분기까지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1.1%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 투자는 10.2% 감소함. 당초 정부의 SOC 예산 확대, 한국판 뉴딜, 공공주도 주택공급 등에 기대가 컸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사업속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여기에 건설 생산체제 개편이 본격화됨으로써 전문 및 중소기업체들의 불안감 역시 상당하여 개별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부정적인 상황임

■ **2022년 건설시장은 2021년에 비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세부적으로 건설투자는 3%, 건설수주는 2%,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22년 건설투자는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건설경기는 2018년부터 이어진 수축국면이 마무리되며,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함. 건설수주, 건축 인허가 등 선행지표 증가세의 누적에 따라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토목투자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투자 역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건설수주는 기저효과에 따라 2022년에는 2% 수준의 제한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함. 다만, 건설수주 증가율이 낮아지더라도 건설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함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최소 건설투자 증가율 수준인 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전체 건설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도급별로는 원도급보다 하도급 부문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2022년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간 시차 지연이 해소되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투자의 회복 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건설투자는 경기순환 국면 상 회복세를 보이거나, 주거용 건물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 건설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 시장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특히, 자재가격의 경우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
- 또한,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리스크가 존재함. 이미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이 이루어졌으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주택수요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함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 및 중소건설업의 불확실성이 역시 커질 우려가 있어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과 전문업체 간 수주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불공정 경쟁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바 있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생산체제 개편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됨

목 차

I.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구성 및 방법	3
II. 대내외 경제동향	4
1. 세계경제	4
2. 국내경제	6
III. 건설경기 동향	10
1. 건설수주	10
2. 건설투자	13
3. 전문건설업	16
4. 생산요소	19
IV. 2022년 건설시장 KEY POINT	21
1. 공공투자 회복세 전환 여부	21
2. 주거용 건물투자 상승세 전환 여부	24
3. 비주거용 건물투자 증가세 지속 여부	26
4. 건설자재 가격 안정세 여부	28
5. 전문건설업 계약액 회복 여부	30
V. 건설경기 전망 및 시사점	32
1. 전망방법 및 변수	32
2. 건설경기 전망	33
3. 요약 및 시사점	36
참고문헌	39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이나,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20년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으나, 2021년 들어 민간소비, 투자, 수출 등 대부분 분야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4.1%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순환 변동상 상승국면에 위치해 있으며, '20년 5월 경기저점 이후 약 18개월째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타 부문, 타 산업과는 차별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GDP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건설투자만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21년 3분기까지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2% 감소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해졌으며, 결과적으로 건설투자는 2017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당초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 초반대의 상승을 전망했었음. 2019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빠르게 증가했고, 2020년부터는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가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임
 -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망은 빗나갔고, 건설경기의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 개별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더욱 부정적인 상황임
 -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올해 내내 건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상당수의 건설기업 현장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21년 3분기까지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3.4%가 상승했고, 건설공사비지수는 12.2% 올랐음. 지난 10년 가까이 낮은 물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 자재 가격 상승은 더욱 크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2021년 건설시장은 지표가 보여주는 숫자와는 별개로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음
 - 여기에 정부의 공공투자 급감 역시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21년 3분기까지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1.1%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 투자는 10.2% 감소함. 공종별로 살펴봐도 민간중심의 건축투자는 1.1% 증가하였으나, 정부중심의 토목투자는 7.2% 줄어들었음
 - 당초 정부의 SOC 예산 확대, 한국판 뉴딜, 공공주도 주택공급 등에 기대가 컸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사업속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의 불안감 역시 상당함. 향후 새로운 경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
- 본고는 불확실성이 큰 현시점에서 건설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도 전망을 시행하고자 함
 - 본 자료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건설기업 특히, 건설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향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건설경기 전망은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소기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도급별(원/하도급) 계약액(수주) 역시 함께 분석함
 - 분석 결과는 한국은행 등 타 기관과 비교 등을 통해 차이점을 제시함
- 전망의 방법은 건설수주, 투자,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시계열모형을 통해 전망치를 도출한 이후,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취함
 - 데이터 속성(월/분기/연) 및 다중공선성 문제 등으로 포함하지 못한 변수와 정책 변수, 대내외 환경 등을 특별히 고려함. 또한, 전문건설업 전망은 모형 이외에 원/하도급, 선/후행, 건축/토목 등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함

2. 구성 및 방법

- 본고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1장에서는 전망 자료의 배경, 목적, 구성,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함
- 2장 대내외 경제동향에서는 한국은행 등 타 기관의 전망치를 정리하여 제시함
 -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전망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IMF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함
 -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부문별로 살펴보고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의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제시함
- 3장에서는 건설경기 동향을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함
 - 건설수주, 건설투자 등은 한국은행, 대한건설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함. 전문건설업의 계약액, 업종별 성장률 등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시함
- 4장에서는 2022년도 건설경기 전망에 있어 핵심쟁점이 될 사안 5가지를 선정하여 내년도 건설경기의 방향성을 점검함
 - 주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생산요소 시장과 전문건설업 시장에 대한 쟁점도 포함하여 설명함
- 5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동향과 주요 쟁점 사항들을 종합하여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하며 건설수주, 건설투자, 전문건설업 등을 그 대상으로 함
 - 또한, 전체적인 전망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그에 따른 향후 건설기업의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함

II. 대내외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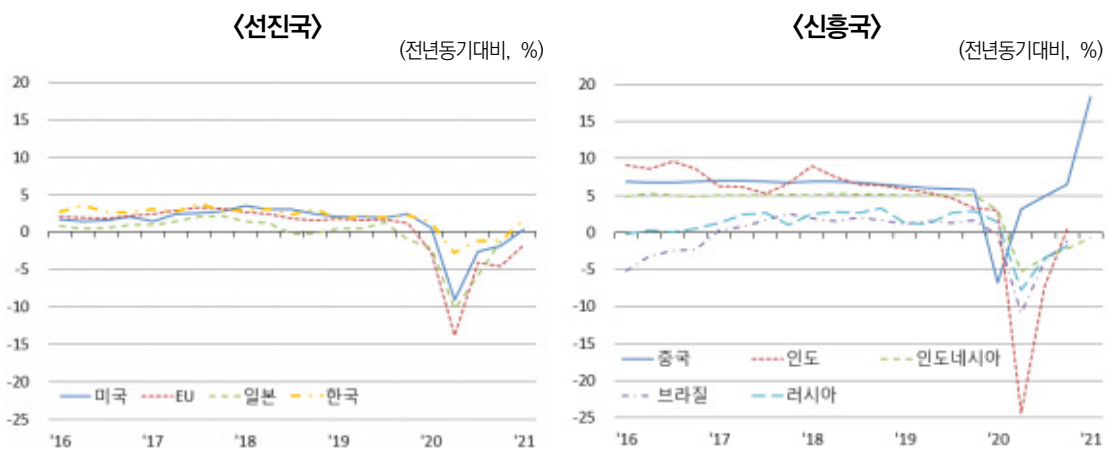
1. 세계경제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5.9%로 전망함. 이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3.3%에 비해 9.2%p 증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경기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확장적인 정책대응을 지속함에 따라 2020년 대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녹색 전환에 따른 공급측면의 병목 및 지체현상 등은 향후 세계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기저효과와 더불어 경기회복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정상궤도로 회복하고 있음.
 - 미국은 '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인구 확대 등의 요인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었고, 여기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민간소비도 크게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1/4분기에 6.3%, 2/4분기에 6.7%를 기록함. 그러나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행하면서 상승세가 둔화하여 '21년 연간 성장률은 5.9%로 전망됨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로 인한 소비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로 '21년 각각 5.0%,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늦출 것으로 보임
 - 일본 역시 코로나19 감염 완화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11. 1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함

- 중국은 '21년 1/4분기 기저효과에 힘입어 1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 정부의 산업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생산, 기업투자,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하며 연간 8.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헝다그룹 등 부동산 부문의 레버리지 문제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향후 위험요인임
- 인도는 '21년 2/4분기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가 더뎠으나, 이후 백신 접종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간 8.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아세안 5개국의 성장률은 3%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들과 달리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백신 접종 지연과 이동 제약에 따른 관광산업 부진이 원인임

[그림-1]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자료: CI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 2022년 세계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 자체는 '2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 차질, 중국경제 성장 둔화, 신흥국 정부의 예산 제약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주요 기관의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음. 전체적으로 4.3%~4.9%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음

[표-1]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구 분		전망시점	2021년 ^{a)}	2022년 ^{a)}
IMF	세계경제 (전체)	2021. 10	5.9	4.9
	선진국		5.2	4.5
	신흥국		6.4	5.1
OECD		2021. 09	5.7	4.5
Global Insight		2021. 10	5.5	4.3
6개 IB 평균		2021. 10	6.0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11	5.9	4.6

자료: 각 기관 전망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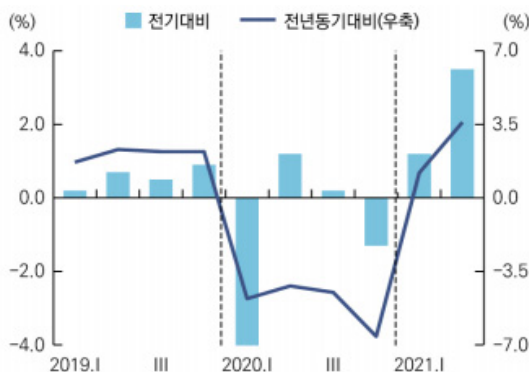
2. 국내경제²⁾

2.1 수요부문별 전망

2.1.1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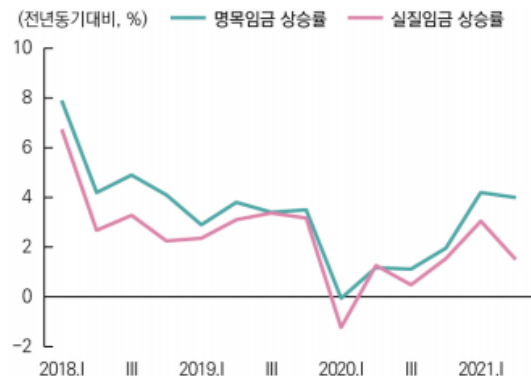
- 2021년 민간소비는 지난해 큰 폭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됨
 -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 영업 제한 완화 조치 등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대면 활동과 관련된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되었음
 - 특히, 2분기 중 민간소비는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함
 -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음
- 2022년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및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백신 접종 진전으로 소비활동 및 소비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가계저축 증가로 소비 여력이 확대된 점도 내년도 민간소비 개선을 뒷받침함
 - 또한, 큰 폭으로 위축되었던 해외소비가 회복되면서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임
- 2022년 정부소비(지출) 역시 예산안 증가에 따라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21년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올해 코로나 피해부문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 편성(49.8조원)에 따른 거저효과가 큰 영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그림-2]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인용

[그림-3] 명목 및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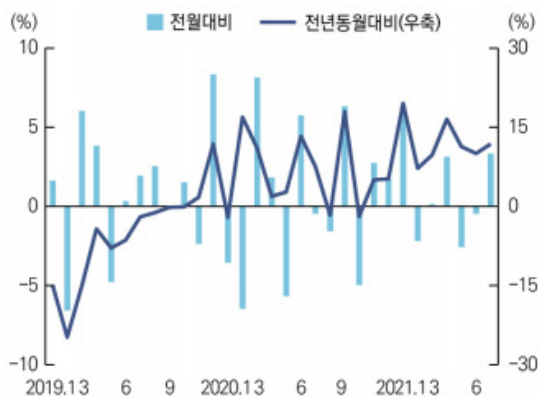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인용

2) 국내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함

2.1.2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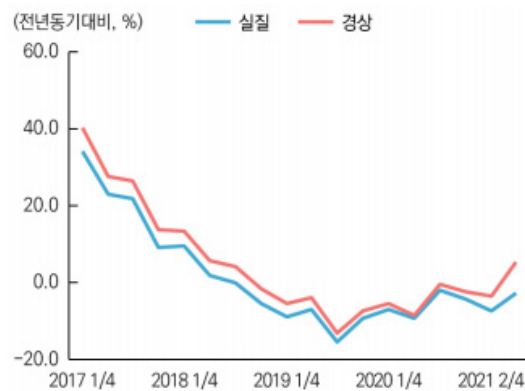
- 2021년 설비투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선박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투자도 개선되어 2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함
- 2022년 설비투자는 IT부문 투자수요 지속과 함께 비IT 부문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최근 기후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 경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역시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22년 설비투자는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률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 공공투자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민간중심의 건축투자는 회복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공공중심의 토목투자는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음
- 2022년 건설투자는 2021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수주, 건축인허가 등 선행지표의 양호한 흐름을 고려하면 '22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R&D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림-4]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재인용

[그림-5] 주거용 건축 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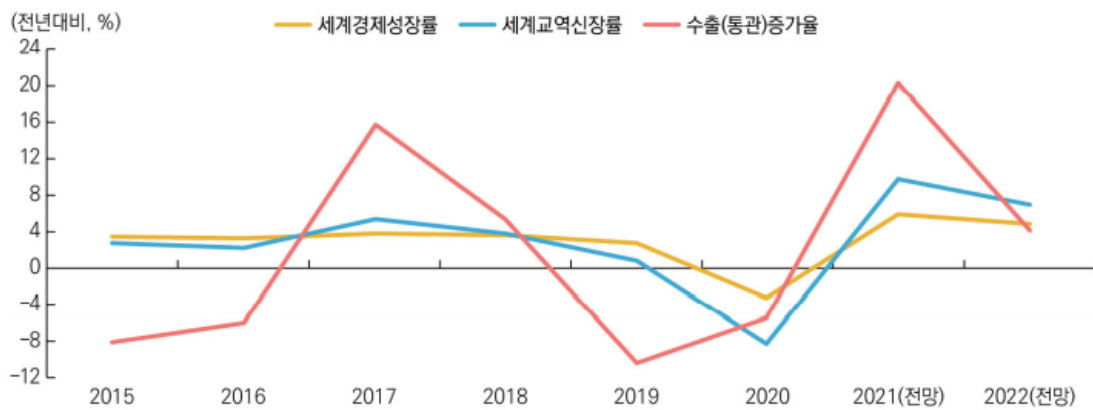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재인용

2.1.3 대외거래

- 2021년 수출은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생산과 투자를 위한 해외수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다만, 글로벌 공급차질 등은 향후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2022 수출은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2021년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글로벌 GDP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여 수출 증가폭도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 수입도 함께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상품수지의 개선세가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는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여행수지의 경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그림-6]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신장률, 수출 추이 등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인용

2.2 경제전망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4.0%에 비해 둔화하여,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저효과에 따라 성장률 자체는 하향되나,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국제기구(IMF, OECD)와 타 연구기관의 2022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8~3.3% 수준으로 세부 전망치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체적인 방향성은 일치하고 있음
 - IMF('20.10)와 OECD('21.9)는 수정전망을 통해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3%와 2.9%로 예상함

-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은 2.9%,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3.0%를 제시하고 있음

〈표-2〉 한국은행 2022년 경제성장률 및 주요 거시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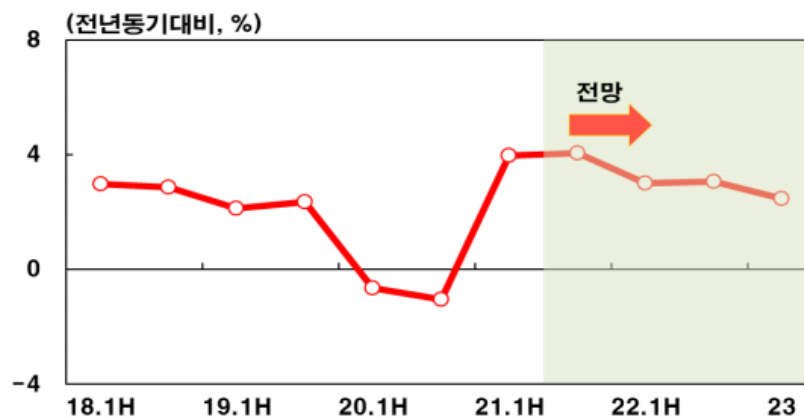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a)}			2022년 ^{a)}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0.9	4.0	4.0	4.0	3.0	3.1	3.0
민간소비	-5.0	2.4	4.7	3.5	4.1	3.2	3.6
설비투자	7.1	12.6	3.9	8.2	-0.5	5.5	2.4
건설투자	-0.4	-1.5	0.1	-0.7	2.1	3.1	2.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0	4.1	4.1	3.7	3.9	3.8
상품수출	-0.5	14.4	3.5	8.5	1.9	3.3	2.6
상품수입	-0.1	12.5	7.8	10.1	2.4	3.7	3.1

자료: 한국은행(2021. 11), 경제전망 보고서

- 2022년 국내 경기는 글로벌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등에 따라 3% 내외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상방요인) 글로벌 성장세 지속, 국내 감염병 상황 개선, 경기부양책 지속, 민간소비 회복세 등
 - (하방요인)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리스크,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공급차질 지연,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등

[그림-기] 향후 경제성장률 경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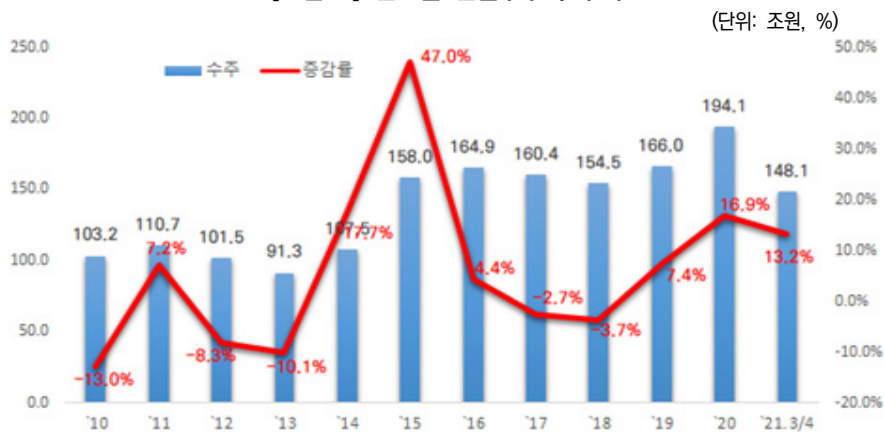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21. 11), 경제전망 보고서

Ⅲ. 건설경기 동향

1. 건설수주

- 2021년 3분기 건설수주는 148.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하며, 금액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지표 중 선행변수로 평가되는 건설수주는 2019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 역시 2년 연속 10%대 이상을 기록함
 - 2015년 이후 건설수주 호조세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경기 호조와 비주거용 건물 수주 증가에 기인함
- 다만,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물가상승분 포함)으로 실제 수주 증가율은 13.2%보다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함
 - 특히, 올해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가 전년말 대비 9월까지 이미 12.2%가 상승하여 건설수주 증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침
 - 건설기성의 경우 '21년 3분기(전년동월비 불변: -6.3%, 경상: +1.2%) 불변과 경상금액의 gap이 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설수주 증가율은 5% 이내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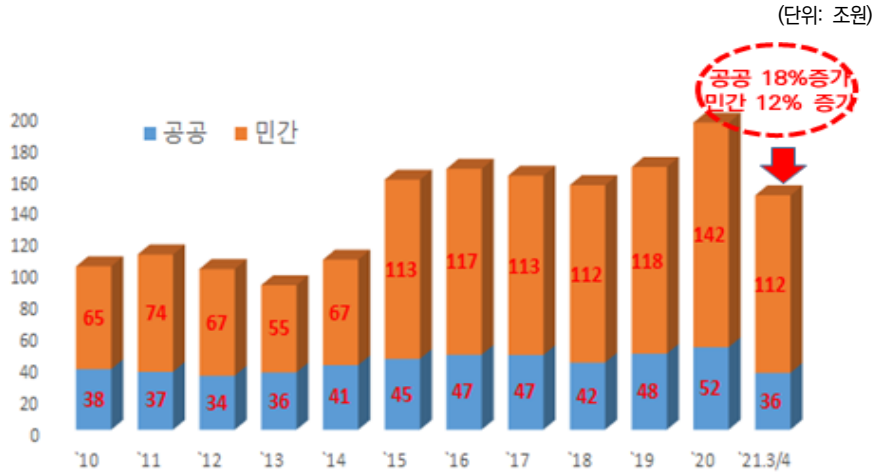
[그림-8] 연도별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대한건설협회

- 건설수주는 금액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발주자별로 공공이 18%, 민간이 12% 각각 증가함

[그림-9]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대한건설협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건설수주는 주거용 건축과 공공건축이 소폭 줄어드는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과 공공 토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비주거용 건축부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7.9% 증가하면서 전체 건설수주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그간 증가세를 보여온 주거용 건축은 감소세로 전환됨
 - 공공 토목 역시 전년동기대비 32.4% 증가하며, 전체 공공수주 증가세를 견인함
- 2021년 공사비지수 급등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 4분기 이후 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3> 국내 건설공사 세부 수주실적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발주자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소계	토목	건축	소계	토목	건축		소계	주거	비주거
21년 9월누계	1,480,991	359,827	239,685	120,142	1,121,165	110,774	1,010,391	350,459	1,130,533	579,538	550,994
20년 9월누계	1,308,107	304,877	181,080	123,797	1,003,230	103,356	899,875	284,436	1,023,671	624,018	399,654
19년 9월누계	1,066,850	278,169	170,168	108,000	788,682	155,675	633,005	325,844	741,007	389,397	351,609
전년동기비	13.2	18.0	32.4	△3.0	11.8	7.2	12.3	23.2	10.4	△7.1	37.9
전전년동기비	38.8	29.4	40.9	11.2	42.2	△28.8	59.6	7.6	52.6	48.8	56.7

자료: 대한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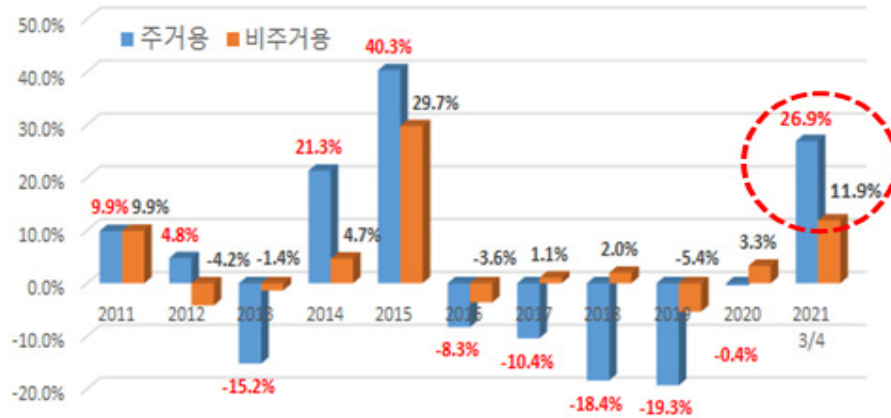
○ 건설수주와 더불어 대표적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은 2020년 이후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허가와 착공면적은 공통적으로 2015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그러나, 2020년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21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
- 건축허가면적은 2021년 3분기까지 주거용이 26.9%, 비주거용이 11.9% 증가함
- 건축착공면적 역시 2021년 3분기까지 주거용이 18.9%, 비주거용이 5.9% 증가함

○ 전체적으로 건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2022년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기대됨

[그림-10] 연도별 건축허가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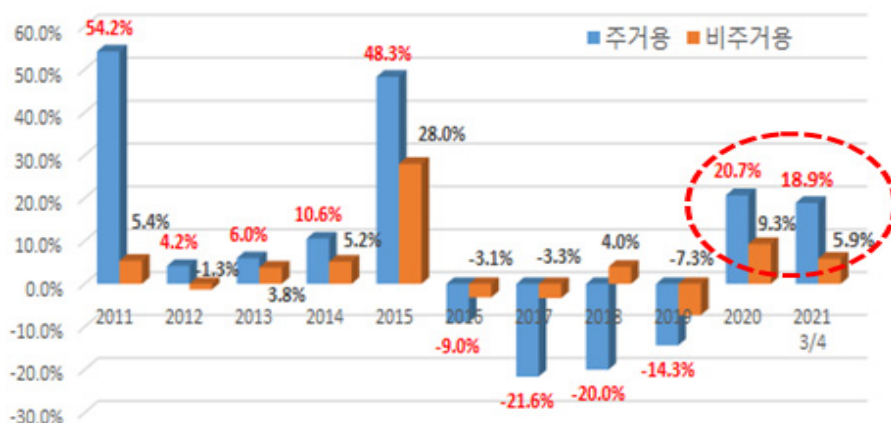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그림-11] 연도별 건축착공면적 추이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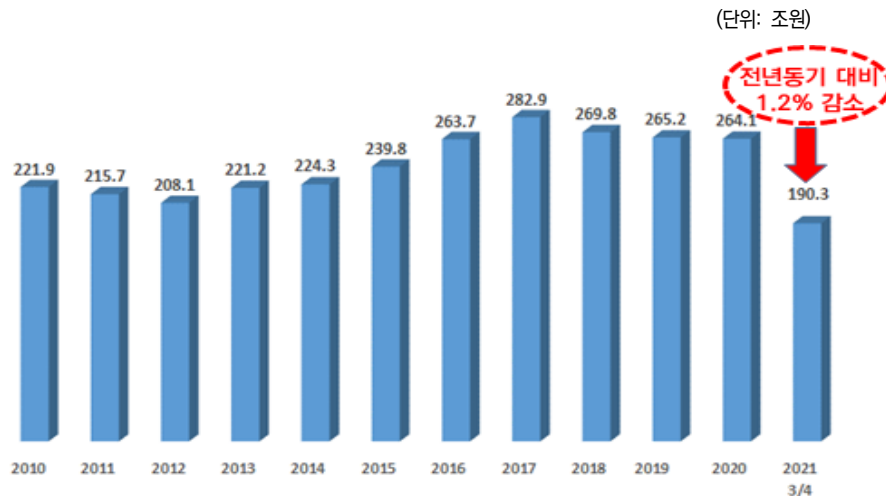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건설투자

- 건설수주가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는 2017년 283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건설투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9년 4분기~2020년 1분기 건설투자는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재차 하락함
- 2021년 3분기까지 건설투자는 190.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며, 사실상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해졌음
 - 결과적으로 건설투자는 2017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그림-12] 연도별 건설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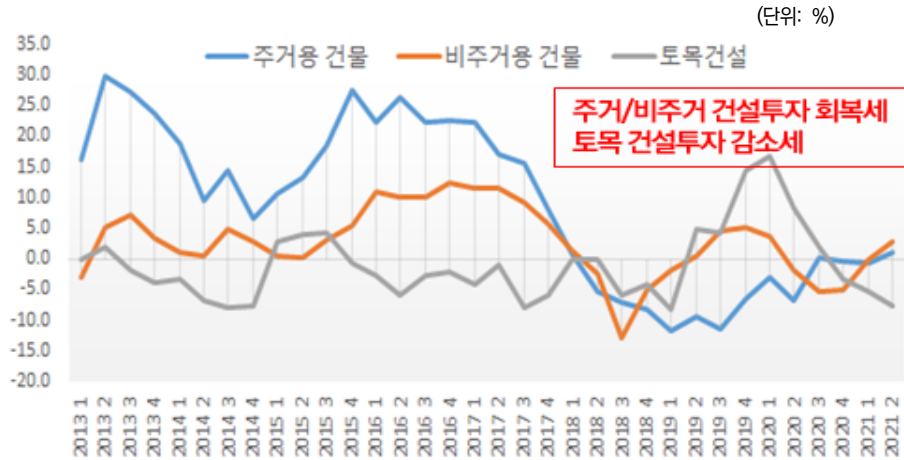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공종별 건설투자는 2020년 이후 토목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던 주거용 건설투자가 2021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비주거용 건물 역시 회복세를 보임
 - 한편, 최근 3년간 건설투자에서 주거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 비주거용은 35.3%, 토목은 29.2%로 각각 나타남
- 주체별 건설투자는 2021년 들어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민간부문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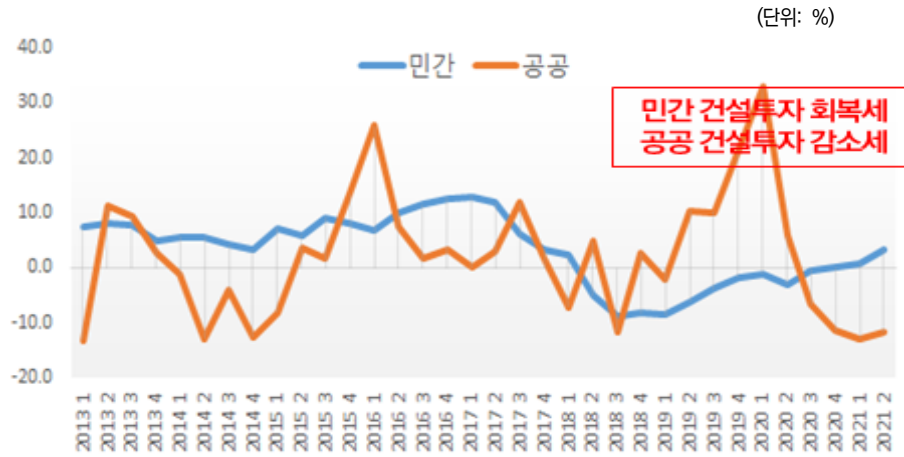
- 공공부문 건설투자의 경우 2020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반면,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2020년 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됨
- 건설투자의 70% 이상이 민간부문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건설투자 증가는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기대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그림-13] 공종별 건설투자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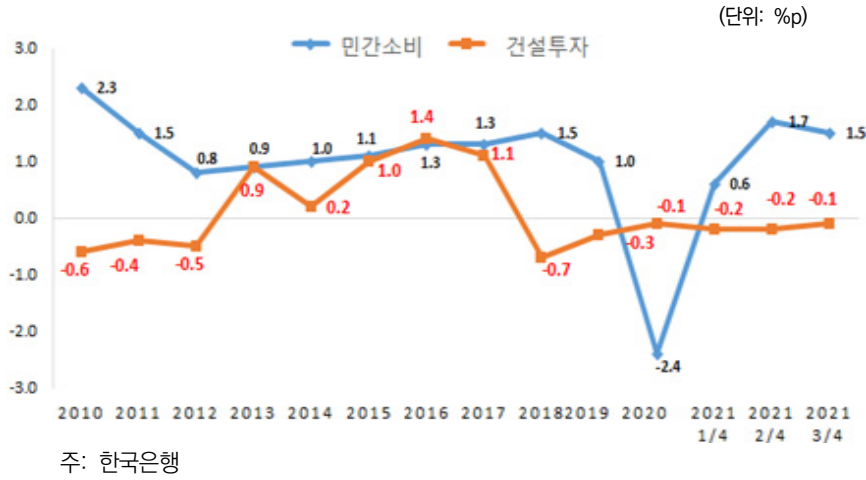
[그림-14] 주체별 건설투자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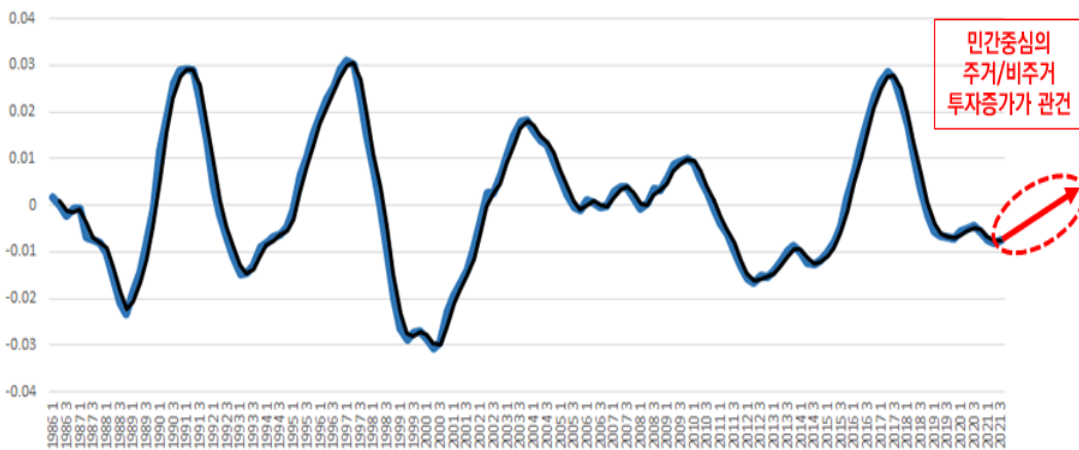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상당했으나, 2018년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
 -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남
 - 다만, 건설투자 감소폭이 크지 않고, 선행지표(건설수주, 허가 및 착공면적)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긍정적 흐름을 기대함

[그림-15] 주요 활동별 경제성장 기여율 추이



- HP필터 순환변동 상 건설투자는 2017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수축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음
 - 2020년 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1년 3분기까지 회복세를 보임
- 향후 건설투자는 2020년 이후 선행지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순환주기상 회복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상승국면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주거 및 비주거 건물투자의 증가가 담보되어야 함
 - 한편, 그간 건설투자는 진폭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변동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임

[그림-16] 건설투자액 순환주기(HP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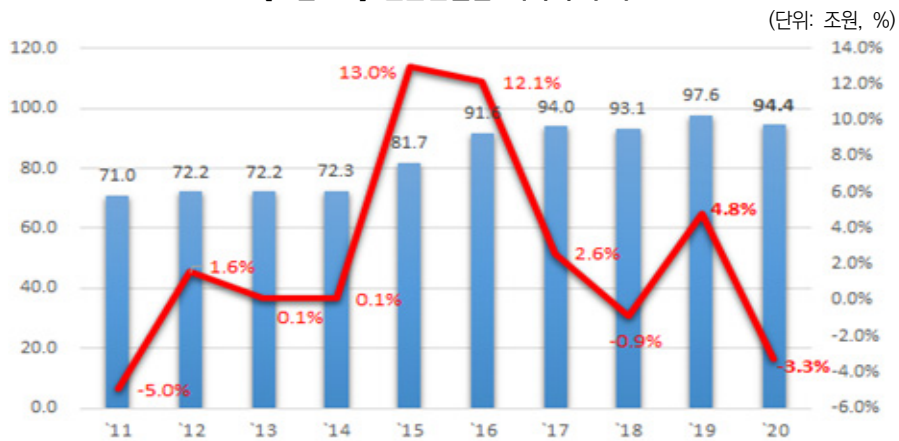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 및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3.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의 전문화, 분업화로 인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전문건설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건설시장 호조로 계약액이 재차 증가추세에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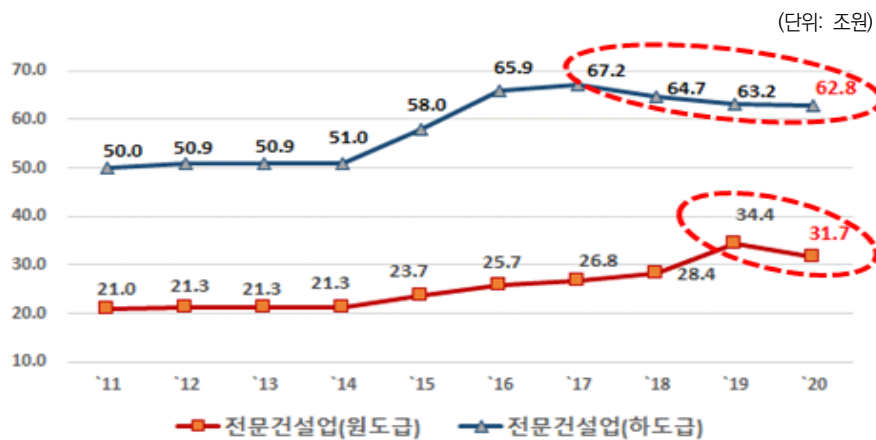
- 그러나,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94.4조원을 기록함
 - 전문건설업 하도급 계약액은 62.8조원으로 0.6% 줄어들었으며, 원도급 계약액은 31.7조원으로 7.8% 감소함
 - 전문건설업 원도급계약의 대부분이 공공공사라는 점에서 2020년 이후 공공부문 건설 투자 감소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17]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이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림-18] 전문건설업 도급별 계약액 추이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줄어들면서 시장 내 주요 업종의 계약실적 역시 전년과 비교하면 감소세를 보임
-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 감소 업종은 철근·콘크리트 -4.6%, 기계설비 -3.6%, 실내건축 -4.5%, 금속구조물 -10.2%, 습식방수 -15.3%, 상하수도 -18.7%, 조경식재 -3.0%, 보링그라우팅 -46.8% 등임
 - 반면, 계약액이 증가한 업종 역시 일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토공 +17.8%, 비계구조물해체 +13.7%, 도장 +4.4%, 포장 +3.0%, 지붕판금 +6.6% 등이 해당함
- 2020년 기준 전문건설업 내 시장비중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18.1조원(19.1%)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계설비(15.2%), 실내건축(12.0%), 토공(11.6%), 금속구조물(8.2%), 시설물유지관리(5.7%)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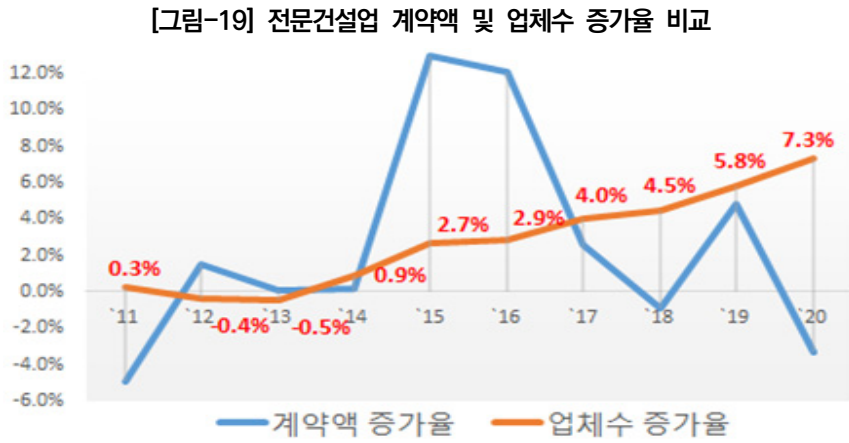
〈표-4〉 전문건설업 업종별 계약액(2020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가율	시장 비중
철근콘크리트	18.93	18.05	-4.6%	19.1%
기계설비	14.92	14.39	-3.6%	15.2%
실내건축	11.92	11.38	-4.5%	12.0%
토공	9.32	10.98	17.8%	11.6%
금속구조물	8.63	7.75	-10.2%	8.2%
시설물	5.43	5.34	-1.7%	5.7%
습식방수	4.52	3.83	-15.3%	4.1%
상하수도	4.27	3.47	-18.7%	3.7%
강구조물	3.04	3.12	2.6%	3.3%
비계구조물해체	2.34	2.66	13.7%	2.8%
조경식재	2.34	2.27	-3.0%	2.4%
도장	2.06	2.15	4.4%	2.3%
포장	1.99	2.05	3.0%	2.2%
석공	1.81	1.93	6.6%	2.0%
지붕판금	1.94	1.79	-7.7%	1.9%
보링그라우팅	1.36	1.25	-8.1%	1.3%
조경시설물	1.41	0.75	-46.8%	0.8%
수중	0.65	0.47	-27.7%	0.5%
승강기	0.29	0.37	27.6%	0.4%
철도궤도	0.13	0.20	53.8%	0.2%
준설	0.20	0.17	-15.0%	0.2%
철강재	0.11	0.05	-54.5%	0.1%
삭도	0.02	0.02	0%	0.0%
전문건설업 전체	97.64	94.45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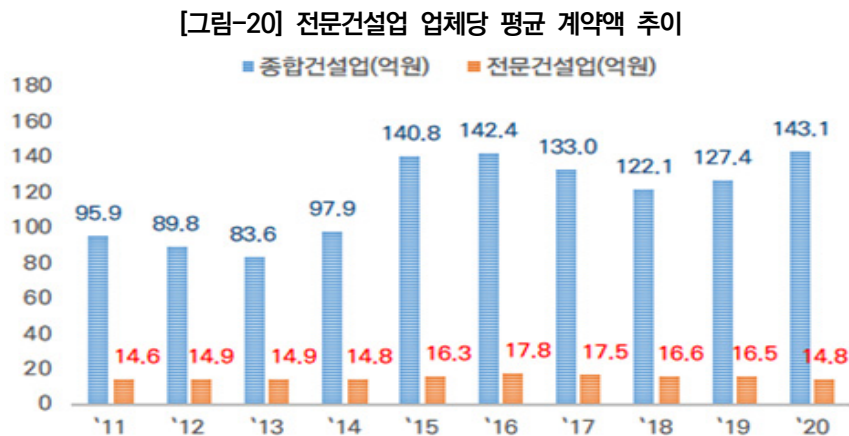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2020년에는 업체수가 7.3% 증가함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 그 결과, 2020년 전문건설업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19년에 비해 10.3% 줄어든 14.8억 원 수준으로 낮아짐
 -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가율: '17년: 2.6%, '18년: -0.9%, '19년: 4.8%, '20년: -3.3%
 - 전문건설업 업체수 증가율: '17년: 4.0%, '18년: 4.5%, '19년: 5.8%, '20년: 7.3%
 - 전문건설업 업체당 평균 계약액: '17년: 17.5억원, '18년: 16.6억원, '19년: 16.5억원, '20년 14.8억원
-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 개별기업이 체감하는 시장 상황은 계약액 감소 폭에 비해 더욱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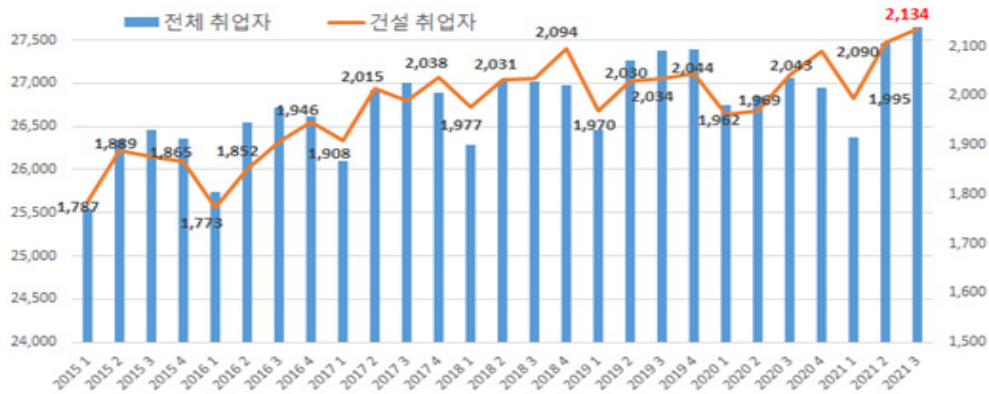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4. 생산요소

4.1 건설고용

- 건설투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추세에 있음
 - 전체 취업자는 2,770만명 수준으로 2021년 들어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임
 - 2021년 3분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21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7.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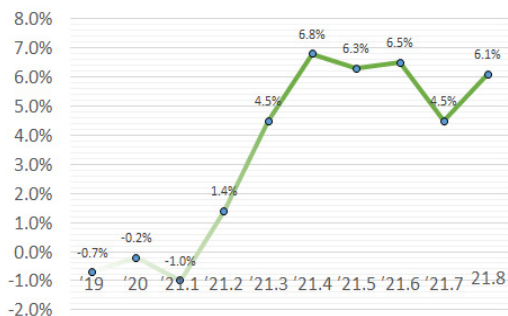
[그림-21] 전체 및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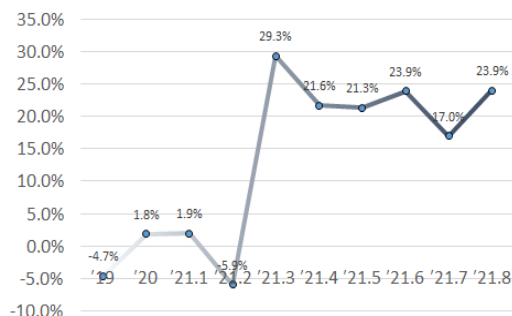
- 특히, 2021년 2분기 이후 취업자 증가의 20%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규 외국인력의 추가적인 진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 등도 건설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건설투자 등 동행지표의 회복세가 예상되어 건설 취업자수는 200만명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22] 건설업 취업자 증가비율(전년비)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23] 증가한 취업자 중 건설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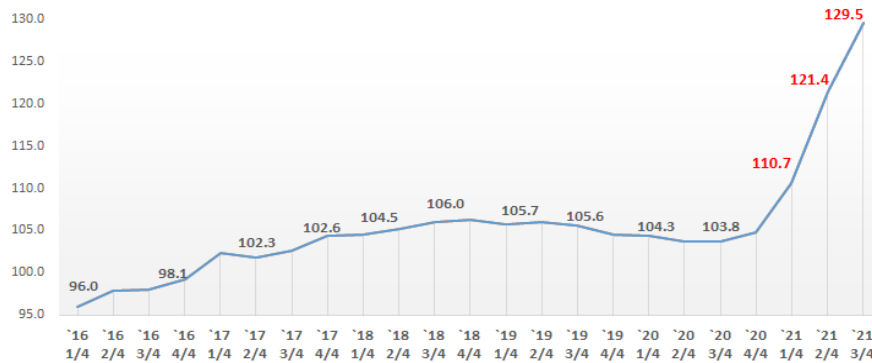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4.2 건설자재

○ 2021년 건설시장 최대 이슈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의 급등일 만큼 건설자재의 상승률이 높았음

- 생산자물가 중 건설용 중간재 상승률은 '21년 3분기 기준 전년말 대비 23.4%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12.2%가 올랐음
- 2020년 연간 건설용 중간재 상승률이 1.8%에 그친 점에 미루어보면 상승 속도와 폭이 매우 가파른 수준임

[그림-24] 생산자물가(건설용 중간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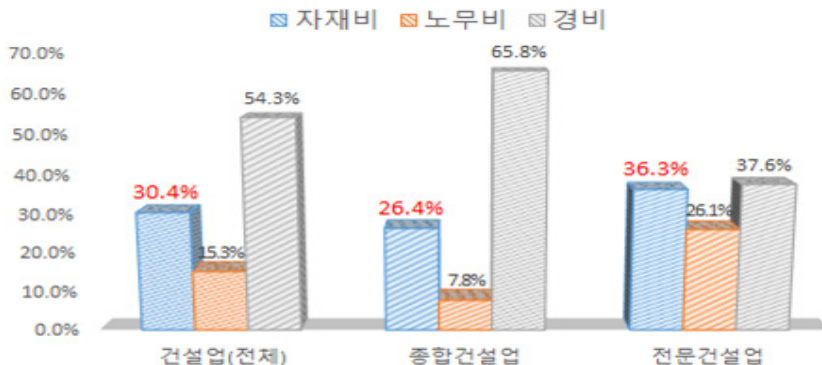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로 인해 건설산업 내 공기지연,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

- 건설업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자재비 비중은 30.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건설공사 시공주체인 전문건설업의 경우 자재비 비중이 36.3%로 더욱 높아 어려움 가중됨
- 특히, 종합건설업 입장에서는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이 노무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재구매는 하도급으로 넘길 가능성 역시 큰 상황임

[그림-25] 건설업 제조원가 비중(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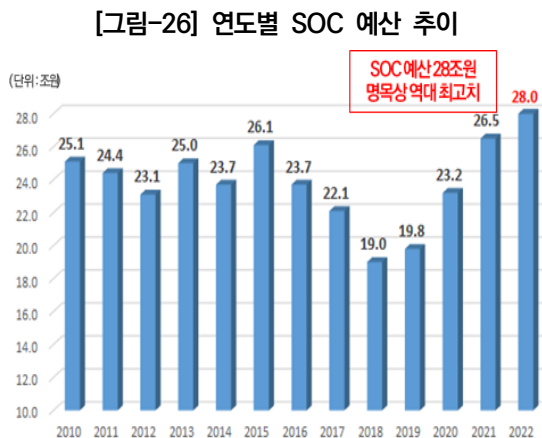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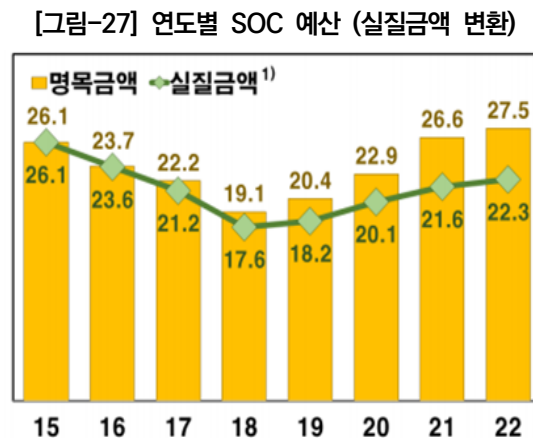
IV. 2022년 건설시장 KEY POINT

1. 공공투자 회복세 전환 여부

- 2022년 정부 SOC 예산안은 2021년 대비 5.7% 증가한 28조원으로 결정되어 사상 최대 금액이 책정됨
 - SOC 예산은 정부의 SOC 분야 지출 구조조정 영향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임
 -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2025년까지 연평균 3.3% 증액하기로 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됨
 - 당초 정부의 SOC 예산안은 27.5조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 4,000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28조원 수준으로 결정됨
- 그러나 SOC 예산은 명목금액으로 건설업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2년 SOC 예산은 22.3조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함
 - 이는 건설부문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적인 예산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 특히, 2021년에는 건설공사비가 최소 10% 이상 상승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 2022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안 역시 2021년 대비 6.6% 증가한 60.8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됨

-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줄어들었음
- 2022년 SOC 분야별 예산은 교통 및 물류부문의 증가폭이 큰 편임. 도로, 철도, 항공·공항, 물류 등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도로가 8.3조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으며, 항공·공항 역시 18.9%가 늘어났음
- 세부 분야별로는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여 그린 리모델링, 수소시범도시 등에 총 8,330억원을 편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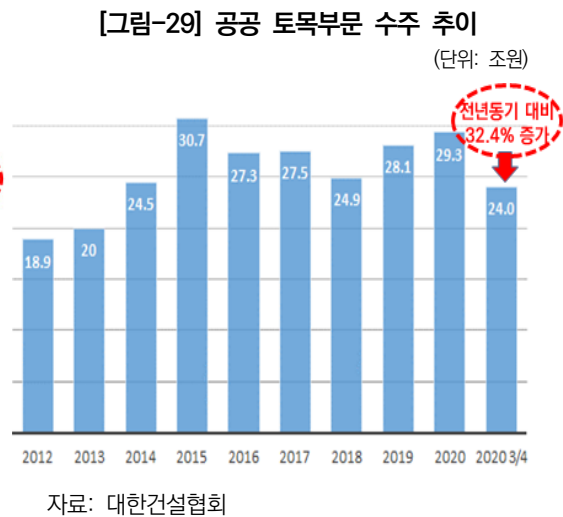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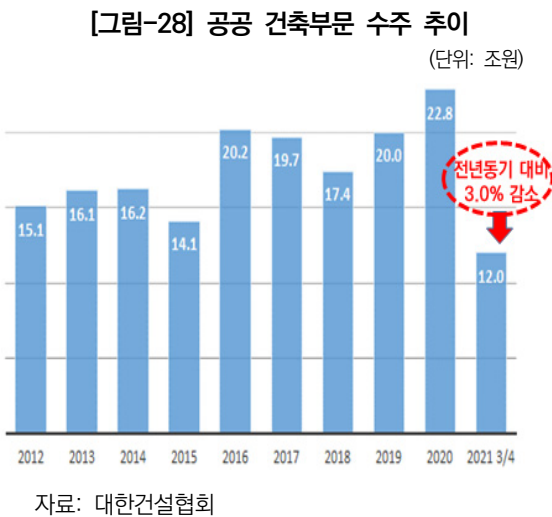
〈표-5〉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
총 계	570,575	574,454	607,995	37,420	6.6
예산 합계	235,984	237,013	250,978	14,994	6.4
소 계	214,994	216,023	227,315	12,321	5.7
□ 교통 및 물류	179,242	180,272	193,817	14,575	8.1
○ 도로	74,997	74,997	83,322	8,325	11.1
○ 철도	80,956	80,956	85,684	4,728	5.8
○ 항공·공항	3,564	3,564	4,237	673	18.9
○ 물류 등 기타	19,725	20,755	20,575	850	4.3
(R&D*)	5,984	5,984	5,788	△196	△3.3
□ 국토 및 지역개발	35,752	35,752	33,498	△2,254	△6.3
○ 수자원	8,126	8,126	7,149	△977	△12.0
○ 지역 및 도시	23,387	23,387	21,650	△1,737	△7.4
○ 산업단지	4,239	4,239	4,699	460	10.9
복지 소 계	20,990	20,990	23,663	2,673	12.7
□ 사회복지	20,990	20,990	23,663	2,673	12.7
○ 주택	1,111	1,111	1,843	732	65.9
○ 기초생활보장	19,879	19,879	21,819	1,940	9.8
기금 합계	334,591	337,441	357,017	22,426	6.7
SOC 소 계	517	517	597	80	15.5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17	517	597	80	15.5
복지 소 계	334,074	336,924	356,419	22,345	6.7
□ 주택도시기금	334,074	336,924	356,419	22,345	6.7
○ 주택계정	324,500	327,350	349,769	25,269	7.8
○ 도시계정	9,573	9,573	6,650	△2,923	△30.5

자료: 국토교통부

- 2021년 3분기까지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감소세에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건축부문의 경우 소폭 감소, 토목부문의 경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3분기까지 건축 및 토목수주를 합하면 전년동기대비 약 18% 증가하였음
- 먼저 공공부문 건축수주는 '21년 3분기까지 약 1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함
 - 학교/관공서,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증가했으며, 물량 비중이 큰 신규주택, 사무실/점포 등이 줄어들었음. 특히, 신규주택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3기 신도시, 3080+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대책의 사업속도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긍정적 흐름이 예상됨. 또한, 공공주도 주택공급물량 확대 등의 기조는 내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토목부문 수주는 '21년 3분기까지 약 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4% 증가함
 - 기계설치 부문을 제외하고 도로/교량, 항만/공항, 상하수도, 철도궤도 등 대다수 공종이 증가세를 시현함
 - 특히, 철도궤도 수주금액은 1.4조원으로 274%가 증가했고, 도로/교량 역시 6.9조원으로 24% 증가하였음



▶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는가?

- ☞ '21년 3분기 공공 건설수주(건축+토목) 18% 증가 + '20년 3분기 이후 공공 건설투자 감소세
- ☞ '22년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의 개선세에 따라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다만, 자재가격 등 건설물가 상승률이 높아 실질 건설투자 증가율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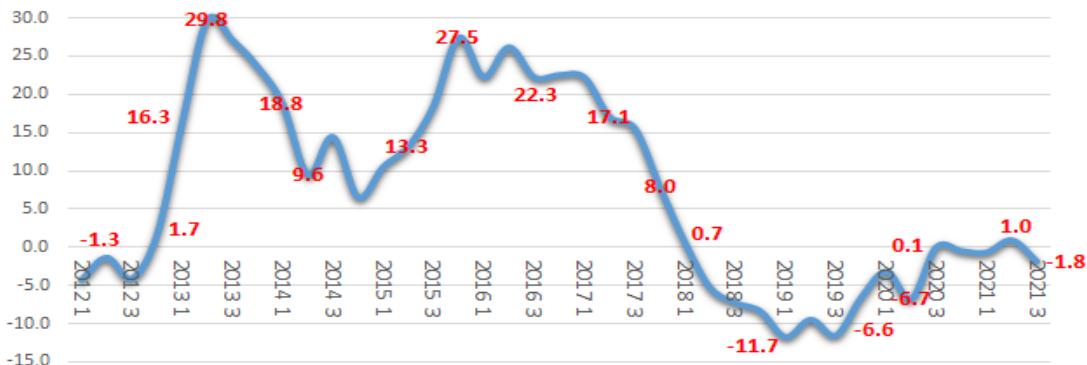
2. 주거용 건물투자 상승세 전환 여부

○ 주거용 건물투자는 2020년 이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거용 건물투자는 '20년 3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21년 2분기에는 +1%로 상승 전환했으나, 최근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30] 주거용 건물투자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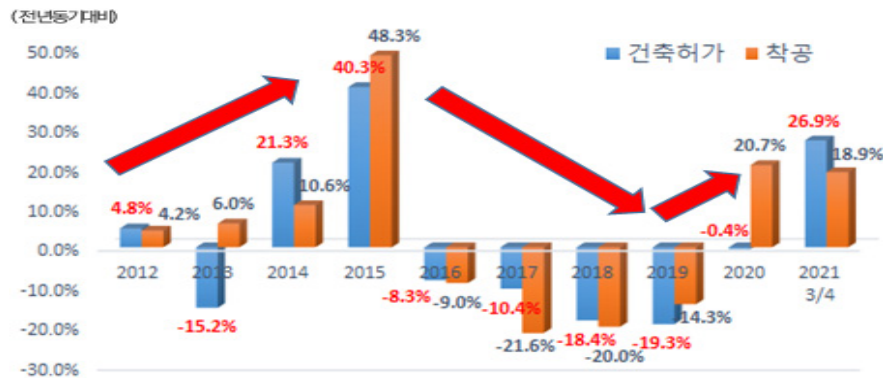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그러나, 주거용 건물투자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및 착공물량, 분양물량이 2020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승세 전환을 기대함

-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 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은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21년 증가폭이 확대되며, '21년 3분기 기준 20% 내외의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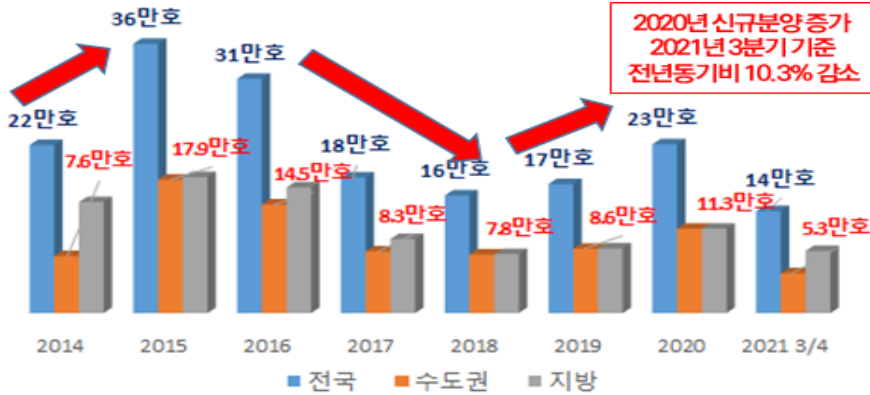
[그림-31] 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신규 분양 세대수는 2015년 36만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8만호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0년 23만호로 회복세를 보임
 - 다만, 분양 세대수는 '21년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약 10% 감소함
 - 2020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공급에 대한 유인은 클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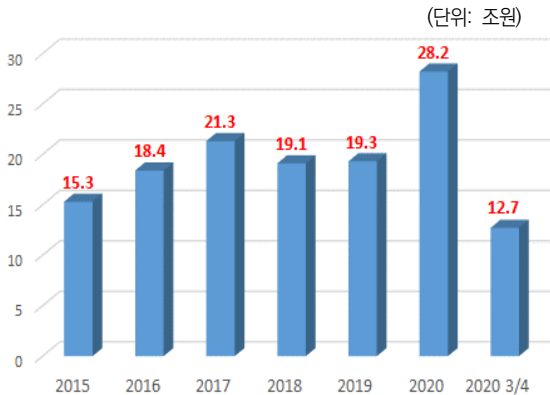
[그림-32] 연도별 신규 분양 세대수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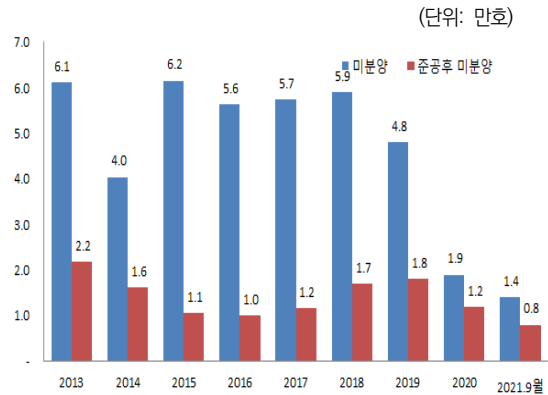
-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큰 가운데, 최근 정비물량 확대 등 여건이 양호한 상황임
 - 2020년 민간중심의 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분양주택 역시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주택시장 수요가 강해, 공급물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그림-33] 재개발/재건축 수주 추이



자료: 대한건설협회

[그림-34]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 주거용 건물투자는 상승세로 전환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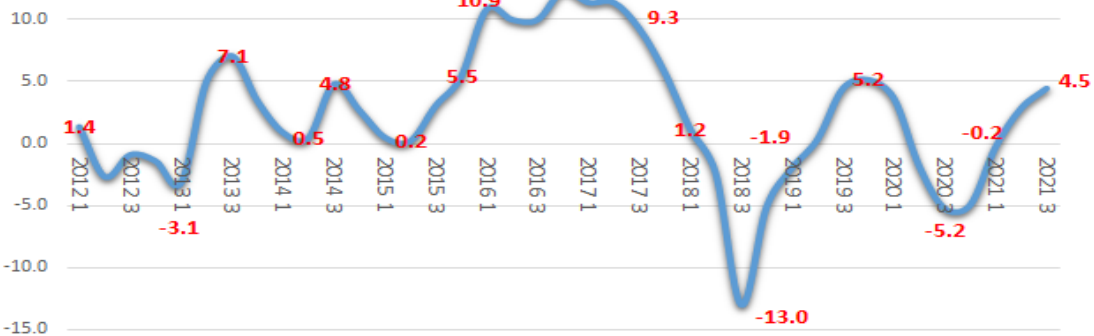
- ☞ '20년 이후 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 증가세 + '20년 3분기 이후 주거용 건물투자 회복세
- ☞ 향후 주거용 건물투자는 공공과 더불어 민간부문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승세 전환이 예상

3. 비주거용 건물투자 증가세 지속 여부

-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2020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5%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2016년 크게 증가한 이후 금액적으로 90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그간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사무실 및 점포 등 상업용 부분의 일부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창고 등 공업용 건축부문이 호조세를 보여왔기 때문임

[그림-35] 비주거용 건물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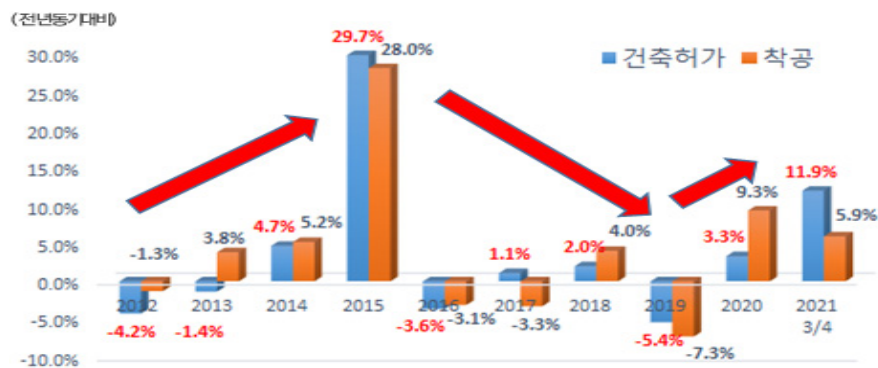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선행지표인 비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은 2015년 크게 증가한 이후 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2020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21년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11.9%, 착공물량은 5.9% 증가함

[그림-36] 비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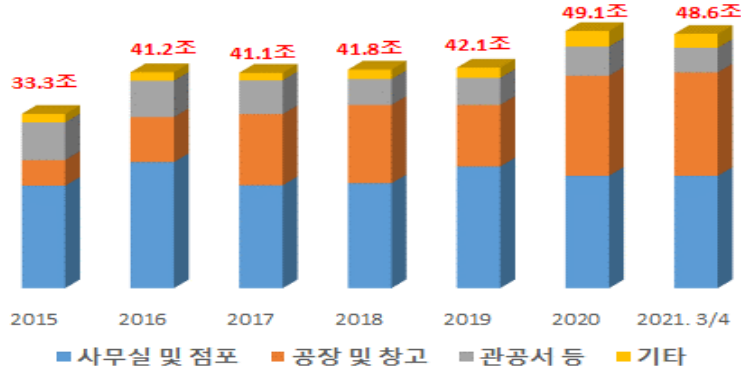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비주거용 건물의 공종별 수주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1년 3분기 수주액은 48.6조 원으로 이미 전년도 수주액에 근접함

- 최근 수주 증가세는 공장 및 창고부문이 주도하고 있음. 소비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업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37] 비주거용 건물 공종별 수주 추이



자료: 통계청

-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나, 점차 방역정책 전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기회복, 주거용 건축 회복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설치, 재정지출 확대 등도 비주거용 건물투자에 긍정적임

[그림-38] 공장 및 창고 수주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인용

[그림-39] 사무실 및 점포 수주 추이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인용

▶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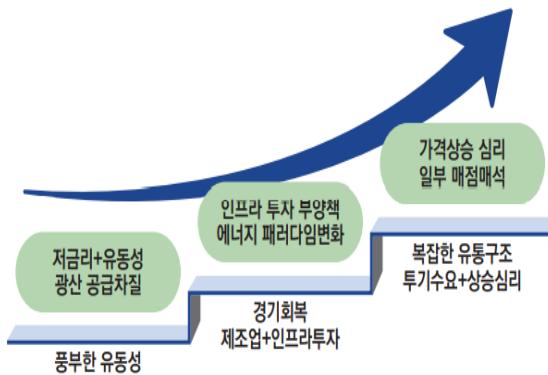
- ☞ 2021년 3분기 기준, 비주거 건설수주 38% 증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 증가 + 경기회복 기대감
- ☞ 2022년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 예상

4. 건설자재 가격 안정세 여부

○ 2021년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크게 나타남

- 원자재 가격은 ①풍부한 유동성(저금리+재정지출 확대), ②일부 광산 등의 공급차질, ③경기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증가, ④에너지 자원주의, ⑤가격상승 심리에 따른 투기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상승함
- 경제 상황이 유사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그림-40] 건설자재 가격상승 요인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그림-41] 국제 원자재 가격 비교(S&P GSCI) (금융위기 VS.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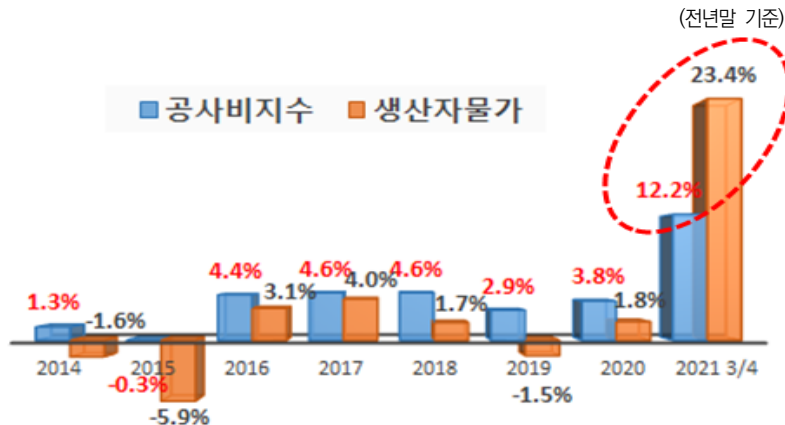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건설공사 원가상승, 현장 지연 등을 발생시켜 큰 혼란을 초래함

- '21년 3분기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2.2%, 건설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3.4% 상승함

[그림-42] 연도별 건설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 중소 종합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으로 다가옴
 - 전문 및 중소건설업체는 자재 생산업체를 통한 직접구매가 어려워 유통사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가격협상력 역시 열위에 있기 때문임
 - 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건설업체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발주자와 원청 간의 분쟁,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 시공에 따른 손실은 물론 법적·행정적 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음

- 다행히, 상당수의 건설자재는 이미 오버슈팅 구간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에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함
 - 건설시장에서 사용 비중이 큰 철광석의 경우 '21년 5월 톤당 200달러를 넘었으나, 최근에는 1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함
 - 다만, 거시경제 환경이 우호적이고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2020년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공신력 있는 전망기관 등에서는 내년에도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은 여전히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43] 건설자재 가격 향후 추이 전망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그림-44]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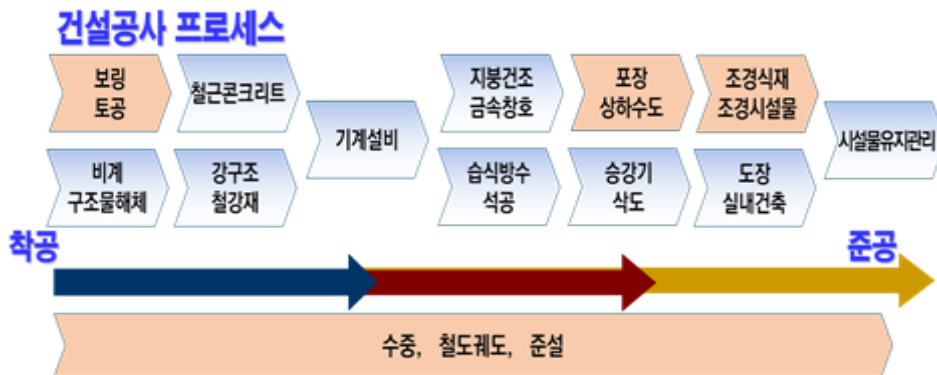
▶ **건설자재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인가?**

- ☞ 2022년 건설자재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 또한, 여전히 가격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와 수익성 관리가 중요하며, 계약 리스크 점검 및 대비 필요

5. 전문건설업 계약액 회복 여부

-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물량이 계약액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전문건설업은 건설기성과 건설투자에 동행관계를 보이며, 건설수주와는 4~6분기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문건설업 경기변동은 건설생산체계의 분업화·전문화로 인해 건설수주와 비교해 진폭이 작은 편임. 또한, 종합건설업 수주가 감소하더라도 전문건설업 하도급 물량을 소폭으로 줄이는 특성 역시 존재하여 변동 폭이 작음
- 한편, 개별 업종은 건설프로세스 상 투입되는 시점에 따라 계약액의 시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선행공종의 경우 건설수주와의 시차가 짧은 반면, 후행공종은 최대 2년 이상까지 건설수주에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전문건설업 업종은 토목 관련 업종과 건축관련 업종으로 구분되며, 이 역시 하도급 계약액에 있어 상이한 시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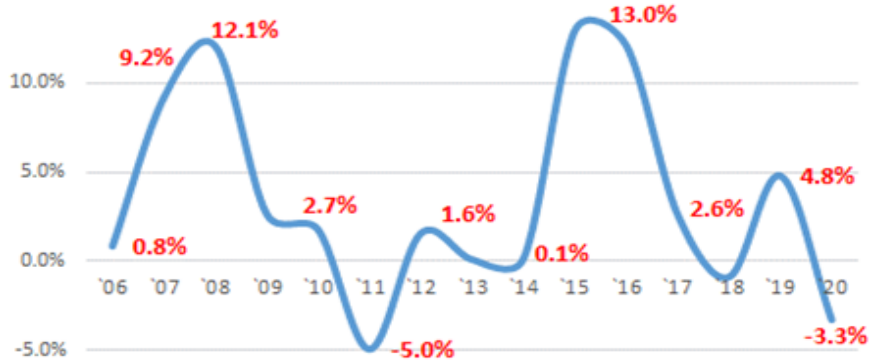
[그림-45] 전문건설업 업종별 건설공사 프로세스



주: 수중, 철도궤도, 준설 등은 건설공사 프로세스와는 별도로 독립적 성격의 공종

-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했으며, 3% 이상 감소한 것은 최근 15년 이래 두 차례(2011년, 2020년)에 불과함
 - 2010년 초반은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건설업 침체 시기(건설수주: '10년: -13% '11년: 7%, '12년: -8%, '13년: -10%)였음
 -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 감소는 이전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일부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원도급 물량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공공공사 물량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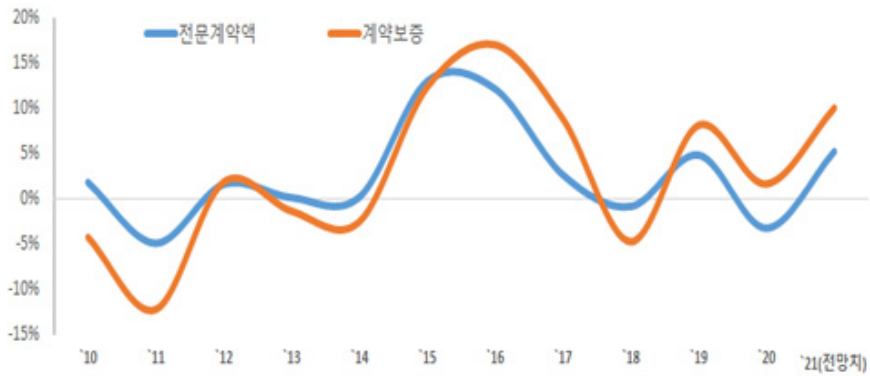
[그림-46] 연도별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감률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 2021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종합건설 수주 증가 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상함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계약보증 데이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21년 계약보증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액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계약액의 경우 명목금액으로 '21년 건설물가 상승폭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액 증가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47] 전문건설업 계약액 및 계약보증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회복 가능한가?

- ☞ 2021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명목금액상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나, 건설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 2022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V. 건설경기 전망 및 시사점

1. 전망방법 및 변수

- 건설경기 전망은 한국은행 등 타 기관과의 비교 등을 위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함. 또한, 중소기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도급별(원/하도급) 계약액(수주)을 전망함
- 건설수주, 투자, 전문건설업 전망의 경우 시계열모형(ARDL)을 통해 도출한 이후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조정함
 - 데이터 속성(월/분기/연) 및 다중공선성 문제 등으로 포함하지 못한 변수와 정책 변수,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함
 - 또한, 전문건설업 전망은 모형 이외에 원/하도급, 선/후행, 건축/토목 등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함
- 2022년 건설시장 상승/회복/둔화/하강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둔화/하강요인에 비해 상승/회복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기대함

[그림-48] 2022년 건설시장 주요 변화 요인

<p>둔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효과로 건설수주 둔화 우려 	<p>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증가세 예상 ✓ 정부 핵심 건설사업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 한국판뉴딜 등 ✓ 선행지표 증가세 누적
<p>하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자재 등 생산요소 가격 변동 ✓ 코로나19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 	<p>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업 경기 회복세 예상 ✓ 기저효과로 민간토목 회복세

2. 건설경기 전망

2.1 건설수주 전망

- 건설수주 전망은 앞에서 살펴본 공공 및 토목부문 추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부문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함
-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216조원으로 예상함
 - 공공/민간, 토목/건축 쏠 분야의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비주거 건축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예상함
 - 다만, 건설물가(건설공사비 등) 상승률이 상당하여 실질 수주 증가율은 5% 내외 수준으로 판단됨
- 2022년 건설수주는 2021년 대비 2% 증가한 220조원으로 전망함
 - 2022년 건설수주는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과 토목부문 수주 증가율이 민간과 건축부문에 비해 소폭 클 것으로 예상함
- 2022년 건설수주 증가율이 낮아지더라도 건설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올해와 같은 건설물가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한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건설경기 회복세와는 별도로 기업의 체감경기는 부정적일 수 있음
 - 한편, 2019년 이후 건설수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조정국면이 도래할 경우 상당 기간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표-6〉 2022년 건설수주 전망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E)
발주자별	공공	48.1조원 (13.5%)	52.1조원 (8.4%)	62.5조원 (20.0%)	65.0조원 (4.0%)
	민간	118.0조원 (5.2%)	142.0조원 (20.4%)	153.8조원 (8.3%)	155.6조원 (1.2%)
공종별	토목	49.5조원 (6.7%)	44.7조원 (-9.7%)	55.9조원 (25.0%)	58.7조원 (5.0%)
	건축	116.6조원 (7.8%)	149.4조원 (28.2%)	160.4조원 (7.4%)	162.0조원 (1.0%)
합 계		166.0조원 (7.4%)	194.1조원 (16.9%)	216.3조원 (11.5%)	220.6조원 (2.0%)

2.2 건설투자 전망

- 2021년 건설투자는 0.9% 감소한 262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공공 및 토목부문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나, 감소폭은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당초 2021년 건설투자는 2%에 가까운 증가세를 예상했고, 한국은행 등 많은 기관 역시 1% 이상의 상승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임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등이 기성, 투자로 이어지는 시차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었고, 건설자재 상승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함
- 2022년 건설투자는 2021년 대비 3.0% 증가한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수주, 건축 인허가 등 선행지표 증가세의 누적에 따라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토목투자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투자 역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타 기관의 2022년 건설투자 전망치는 1.9% ~ 2.8%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2022년 건설투자는 2021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건설투자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9%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이 3%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수준임

〈표-7〉 2022년 건설투자 전망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한국은행(11월)	-0.4%	-1.5%	0.1%	-0.7%	2.6%
KDI(11월)	-0.4%	-1.5%	0.5%	-0.5%	2.4%
국회예산정책처(10월)	-0.4%	-	-	0.1%	1.9%
현대경제연구원(10월)	-0.4%	-1.5%	2.9%	0.7%	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11월)	-0.4%	-1.5%	1.4%	0.0%	2.4%
대한건설정책연구원(12월)	-0.4%	-1.5%	-0.3%	-0.9%	3.0%

자료: 각 기관별 전망 자료

2.3 전문건설업 전망

- 2021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20년 대비 5.5% 증가한 99.6조원으로 전망됨
 - 2020년도 3.3%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을 보임
 - 또한, 공공 및 토목투자 감소에 따라 원도급이 부진한 데 비해, 주거 및 비주거 건물투자 증가로 하도급 수주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전문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건설물가 상승폭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액 증가는 크지 않기 때문임
 - 또한, 건설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신규 수주의 제한적인 증가는 경쟁 심화에 따른 개별기업의 계약액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2022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21년 대비 3.0% 증가한 102.6조원으로 전망함
 -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도급에 비해 하도급 부문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2022년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예상되어 실제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가율은 3%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자재가격 상승 압력 등 시장 내 리스크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함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중장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 전반적인 건설경기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나, 건설생산구조 내 전문화, 분업화 역시 이미 고도화되었기 때문임
 - 또한, 생산체제 개편이 본격화된다면 전문건설업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특히, 2022년은 업역개편, 대업종화 등이 동시에 시행되어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표-8〉 2022년 전문건설업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E)
도 급 별	원도급	26.8조원 (4.3%)	28.4조원 (5.9%)	34.4조원 (21.1%)	31.7조원 (-7.8%)	31.7조원 (0.0%)	32.4조원 (2.2%)
	하도급	67.2조원 (2.0%)	64.7조원 (-3.7%)	63.2조원 (-2.3%)	62.8조원 (-0.6%)	67.8조원 (8.0%)	70.2조원 (3.5%)
합계		94.0조원 (2.6%)	93.1조원 (-0.9%)	97.6조원 (4.8%)	94.4조원 (-3.3%)	99.6조원 (5.5%)	102.6조원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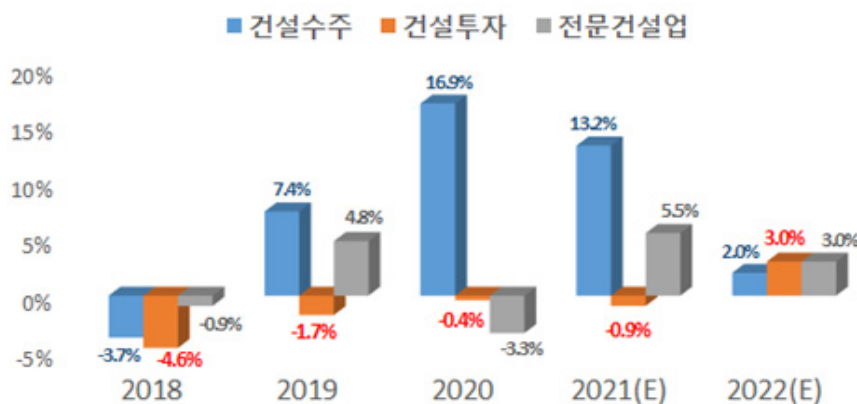
3. 요약 및 시사점

3.1 요약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4%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의 경우 타 부문과는 다르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2021년 3분기까지 GDP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건설투자 만이 -1.2%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해졌으며, 결과적으로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당초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2019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빠르게 증가했고, 2020년부터는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가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임
 -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망과는 다르게 건설경기의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 개별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더욱 부정적인 상황임
 -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올해 내내 건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상당수의 건설기업 현장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2021년 3분기까지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3.4%가 상승했고, 건설공사비 지수는 12.2% 올랐음. 지난 10년 가까이 낮은 물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 자재가격 상승은 더욱 크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2021년 건설시장은 지표가 보여주는 숫자와는 별개로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음
 - 여기에 정부의 공공투자 급감 역시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3분기까지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1.1%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 투자는 10.2% 감소함. 공종별로 살펴봐도 민간중심의 건축투자는 1.1% 증가하였으나, 정부중심의 토목투자가 7.2% 줄어들었음
 - 당초 정부의 SOC 예산 확대, 한국판 뉴딜, 공공주도 주택공급 등에 기대가 컸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사업속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행히, 2022년 건설시장은 2021년에 비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2022년 건설투자는 3% 증가하면서 4년 동안 이어온 역성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수주는 2% 수준의 제한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함. 전문건설업 역시 최소 건설투자 증가율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함
-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이어진 건설업 수축국면이 마무리되며,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함. 건설수주, 건축 인허가 등 선행지표 증가세의 누적에 따라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토목투자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투자 역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건설수주는 기저효과에 따라 2022년에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함. 다만, 건설수주 증가율이 낮아지더라도 건설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함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체 건설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도급별로는 원도급에 비해 하도급 부문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그림-49] 2022년 건설수주, 건설투자, 전문건설업 전망 종합



- 2022년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간 시차 지연이 해소되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투자의 회복 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건설시장에서 민간 건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투자만으로는 건설경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임
 - 건설투자의 경우 현재 경기순환 국면상 회복세를 보이나, 주거용 건물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2 시사점 및 전략

- 향후 건설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 시장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무엇보다 건설자재를 포함한 생산요소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자재가격의 경우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또한,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리스크가 존재함. 이미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주택수요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함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 및 중소건설업의 불확실성이 역시 커질 우려가 있어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2022년에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됨. 업역 폐지는 공공 및 민간으로 전면 확대되며,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도 역시 시행됨
 - 이미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과 전문업체 간 수주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불공정 경쟁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노출된 바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계약액 증가에 비해 업체수 증가 폭과 속도가 빨라 업체당 계약액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전문 및 중소건설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은 물론 생산체계 개편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됨
- 건설기업은 단기적으로 생산요소 확보와 관리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올해 건설 자재가격 상승과 요소수 대란 등을 겪으며 생산요소의 원활한 관리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인임이 부각되었음. 이는 2022년에도 건설기업의 단기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디지털 전환, ESG 대비 등 건설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하여야 함

• 박선구, 연구위원(parksungu@ricon.re.kr)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보도자료
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3.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4.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안
5. 기획재정부, 국가재정 운용계획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세계경제 전망
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완성공사원가
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9. 대한건설협회, 월간 건설경제동향
10.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통계연보
11.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12.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통계연보
13. 통계청, 건설업조사
14. 한국은행, 2022년 경제전망보고서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6.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1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년 건설경기 전망
1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광물가격 지표
20.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한국경제 전망
21. LG경제연구원, 2022년 국내외 경제전망

2022년 건설경기 전망

2021년 12월 인쇄

2021년 12월 발행

발행인 유병권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118-7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